

WEBVTT

00:00:10.609 --> 00:00:13.272

안녕하세요?
장동준 샘입니다.

00:00:13.372 --> 00:00:15.960

장동준의 왕초보 만화 국어 문법.

00:00:16.060 --> 00:00:18.984

이번 시간 드디어
음운의 변동입니다.

00:00:19.084 --> 00:00:23.892

지난 번에 배웠던 음운의 개념,
또 음운의 종류, 음운의 체계.

00:00:23.992 --> 00:00:29.574

이것들은 바로 음운의 변동을 제대로
배우기 위한 밑작업이었다.

00:00:29.674 --> 00:00:34.996

그러면 이번 시간 음운의 변동에
대해서 들어가볼 건데요.

00:00:35.096 --> 00:00:39.106

이 부분은 여러분이 더욱더
주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

00:00:39.206 --> 00:00:41.819

일단 제가 쉽게 설명을
해드리기는 할 거지만

00:00:41.919 --> 00:00:45.769

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집중을 잘
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

00:00:45.869 --> 00:00:47.023

미리 말씀드릴게요.

00:00:47.179 --> 00:00:51.692

그러면 음운의 변동은
크게 이렇게 나누어진다.

00:00:51.792 --> 00:00:53.073

이거부터 시작을 합시다.

00:00:53.173 --> 00:00:57.443

일단 이거부터 정리가 안 되어있으면
문제 접근조차 못합니다.

00:00:57.543 --> 00:00:59.516

일단 잘 보세요.

00:00:59.616 --> 00:01:02.892

음운의 변동을 배울 때 우리
친구들이 배웠던 내용이 있어요.

00:01:02.992 --> 00:01:05.943

비음화라든지 구개음화라든지

그런 익숙한 내용들이 나와요.

00:01:06.043 --> 00:01:09.719

그런데 일단 그거에 앞서서
음운의 변동이라는 것은

00:01:09.819 --> 00:01:13.932

크게 네 파트로 나뉜다고
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.

00:01:14.032 --> 00:01:17.520

일단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는
게 제일 중요합니다.

00:01:17.620 --> 00:01:23.005

교재를 보면 음운의 변동이라는 말이
42쪽에 나와 있어요.

00:01:23.105 --> 00:01:28.531

42쪽에 보면 세 번째
컷에 음운의 변동이란,

00:01:28.631 --> 00:01:33.174

한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바뀌는
현상 전체를 가르키는 말이다.

00:01:33.274 --> 00:01:35.254

이렇게 되어있죠.

00:01:35.354 --> 00:01:40.771

굳이 여기 나와 있는 예를 안
든다고 할지라도 이런 겁니다.

00:01:43.615 --> 00:01:45.741

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?

00:01:45.841 --> 00:01:48.736

백로, 이렇게 되나요?

00:01:48.836 --> 00:01:55.458

아니죠, 최종적으로 이게
발음이 뱅노가 됩니다.

00:01:55.558 --> 00:01:57.118

어떻게 된 거예요?

00:01:57.218 --> 00:02:00.105

지금 음운이 ㄱ과 ㄹ이 만나서

00:02:00.205 --> 00:02:06.034

ㄱ은 ㅇ이 되고 ㄹ은 ㄴ이 됐어요.

00:02:06.134 --> 00:02:08.665

음운이 지금 바뀌었어요,
안 바뀌었어요?

00:02:08.765 --> 00:02:09.722

바뀌었죠.

00:02:09.822 --> 00:02:11.328

이게 음운의 변동입니다.

00:02:11.428 --> 00:02:15.124

이런 양상들을 우리가
정리를 해본다는 거죠.

00:02:15.224 --> 00:02:21.527

이런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
과정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.

00:02:21.627 --> 00:02:27.978

그러면 음운의 변동은 크게
교체, 탈락, 첨가, 축약.

00:02:28.078 --> 00:02:29.524

다시 한 번 봅니다.

00:02:29.624 --> 00:02:33.480

교체, 탈락, 첨가, 축약
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

00:02:33.580 --> 00:02:36.245

먼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.

00:02:36.345 --> 00:02:41.025

교체부터 순서대로 쪽
진행을 할 건데요.

00:02:41.125 --> 00:02:46.250

교체는 43쪽에 시작이 되어있죠.

00:02:46.350 --> 00:02:47.557

교체에 해당되는 것들이

00:02:47.657 --> 00:02:50.797

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
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

00:02:50.897 --> 00:02:53.256

한번 볼까요?

00:02:53.356 --> 00:02:59.637

교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,
비음화, 유음화, 구개음화,

00:02:59.737 --> 00:03:03.173

된소리되기, 다른 말로 경음화.

00:03:03.273 --> 00:03:08.449

경음이라고 되어있는데
경 자가 딱딱하다, 된소리다.

00:03:08.549 --> 00:03:10.784

같은 이야기예요, 된소리, 경음.

00:03:10.884 --> 00:03:15.979

그냥 참고로, 상식이니까.

00:03:18.328 --> 00:03:20.978

평음이라는 말이 있고요.

00:03:21.078 --> 00:03:24.911

여기 나오는 경음이라는
말이 있습니다.

00:03:25.011 --> 00:03:28.650
그다음에 격음이라는 표현도 있어요.

00:03:28.750 --> 00:03:31.889
문법 문제 풀다보면.

00:03:31.989 --> 00:03:36.860
경음은 된소리라고 말씀드렸고.

00:03:36.960 --> 00:03:40.560
격음은 뭘까요?
소리의 세기를 이야기할 때.

00:03:40.660 --> 00:03:41.839
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.

00:03:41.939 --> 00:03:44.796
소리의 세기할 때 된소리가 있으면
그 된소리보다 더 센 게 뭐예요?

00:03:44.896 --> 00:03:45.712
격음이죠.

00:03:45.812 --> 00:03:50.177
격음은 거센소리.

00:03:50.277 --> 00:03:54.932
그러면 평음은 예사소리.

00:03:58.338 --> 00:04:02.021
그래서 이런 용어들도
기억을 해주면 좋죠.

00:04:02.121 --> 00:04:06.376
그러면 이렇게 교체에는
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

00:04:06.476 --> 00:04:09.237
교체라는 게 일단
무엇인지를 말씀드릴게요.

00:04:09.337 --> 00:04:11.888
교체는 선수 교체를 생각하면 돼요.

00:04:11.988 --> 00:04:14.139
선수 교체!

00:04:14.239 --> 00:04:15.842
무슨 이야기예요?

00:04:15.942 --> 00:04:20.331
어떤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빠지고
다른 것이 온다는 이야기예요.

00:04:20.431 --> 00:04:24.798
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
점검을 해보겠습니다.

00:04:24.898 --> 00:04:27.031

그런데 여기서 공부하는
방법을 말씀드릴게요.

00:04:27.131 --> 00:04:31.549

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우고
이것이 그러해서 교체구나.

00:04:31.649 --> 00:04:35.177

이게 왜 교체구나, 이런
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.

00:04:35.277 --> 00:04:36.073

다시 한 번.

00:04:36.173 --> 00:04:37.865

교체에는 음절의 끝소리
규칙이 있는데

00:04:37.965 --> 00:04:40.971

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이러한
이유로 교체에 해당이 되는구나.

00:04:41.071 --> 00:04:44.110

이런 식으로 마무리를
하면서 착착 가야 돼요.

00:04:44.210 --> 00:04:47.198

그래서 마지막에 비음화가
그래서 교체구나.

00:04:47.298 --> 00:04:50.587

유음화가 그래서 교체구나,
이런 식으로.

00:04:50.687 --> 00:04:54.805

이해되죠? 이게 고등학교 국어
문법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.

00:04:54.905 --> 00:04:58.616

이렇게 안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
머릿속에 체계가 안 잡히고

00:04:58.716 --> 00:05:00.725

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
이런 내용이 나와도

00:05:00.825 --> 00:05:02.564

이런 낯선 용어들이
딱 나오는 순간,

00:05:02.664 --> 00:05:06.926

이게 뭐지? 이런 식으로
당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

00:05:07.026 --> 00:05:13.952

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
그대로 꼭 따라오면 돼요.

00:05:14.052 --> 00:05:16.265

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보겠습니다.

00:05:16.365 --> 00:05:19.668
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.

00:05:19.768 --> 00:05:23.152
43쪽 세 번째 컷에 보면,

00:05:23.252 --> 00:05:26.948
국어에서는 음절의 끝에서 ㄱ,
ㄴ, ㄷ, ㄹ, ㅁ, ㅂ, ㅇ

00:05:27.048 --> 00:05:29.875
7개의 자음만 발음된다고
되어있습니다.

00:05:29.975 --> 00:05:36.269
음절이라고 했는데 음절이 뭐예요?

00:05:36.369 --> 00:05:39.470
가장 기본적인 의문이죠,
음절이 무엇인가?

00:05:39.570 --> 00:05:43.569
음절은 한 번에 소리낼 수
있는 소리인 것 같아요.

00:05:43.669 --> 00:05:46.276
말이 좀 어렵죠? 그냥 한 글자.

00:05:46.376 --> 00:05:50.570
그런데 음절의 끝소리라고 했으니까

00:05:50.670 --> 00:05:54.539
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

00:05:56.658 --> 00:06:02.416
부엌 했을 때 부는 지금 음절의
끝소리가 있어요, 없어요?

00:06:02.516 --> 00:06:04.184
부엌은 2음절이죠.

00:06:04.284 --> 00:06:06.665
부 1음절, 엌 2음절.

00:06:06.765 --> 00:06:08.920
한 글자가 한 음절이에요.

00:06:09.020 --> 00:06:11.812
그런데 부 같은 경우는
끝소리가 있어요, 없어요?

00:06:11.912 --> 00:06:12.810
끝소리가 없죠.

00:06:12.910 --> 00:06:15.462
첫소리, 가운데 소리밖에 없어요.

00:06:15.562 --> 00:06:16.713
받침이 없잖아요.

00:06:16.813 --> 00:06:20.010

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에서
끝소리라는 게 뭐냐면

00:06:20.110 --> 00:06:25.002

이게 뭐냐면 받침이에요.

00:06:27.238 --> 00:06:33.108

그래서 부엌 할 때 첫소리 ㅇ,
가운데 소리 어, 끝소리 ㅋ.

00:06:33.208 --> 00:06:35.026

여기 끝소리가 있네요.

00:06:35.126 --> 00:06:42.171

이거를 발음할 때에 올 수 있는
것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06:42.271 --> 00:06:45.991

어떻게 발음되죠?

00:06:46.091 --> 00:06:51.021

부엌, 이렇게 발음되죠.

00:06:51.121 --> 00:06:53.159

잘 보세요.

00:06:53.259 --> 00:06:57.761

바로 이 부분, 발음 기호 안에.

00:06:57.861 --> 00:06:59.535

잘 보셔야 돼요.

00:06:59.635 --> 00:07:04.841

발음 기호 안에서의 이
음절의 끝소리, 이 부분.

00:07:04.941 --> 00:07:11.068

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이
7개 자음밖에 안 된다.

00:07:11.168 --> 00:07:13.990

이게 바로 음절의
끝소리 규칙이에요.

00:07:14.090 --> 00:07:17.963

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
규칙에 올 수 있는

00:07:18.063 --> 00:07:19.298

발음 기호 안에, 발음이죠.

00:07:19.398 --> 00:07:23.783

이 끝소리 발음 안에 올 수 있는
것은 오로지 7개의 자음밖에 없다.

00:07:23.883 --> 00:07:27.678

이것이 바로 음절의
끝소리 규칙이다.

00:07:27.778 --> 00:07:32.583

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음절의
끝소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은 7개다.

00:07:32.683 --> 00:07:33.888
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.

00:07:33.988 --> 00:07:35.541
그래서 그 7개가 뭐다?

00:07:35.641 --> 00:07:41.228
ㄱ, ㄴ, ㄷ, ㄹ,
ㅁ, ㅂ, ㅇ이다.

00:07:41.328 --> 00:07:43.647
그래서 지금 ㅋ 대신에
뭐가 왔어요?

00:07:43.747 --> 00:07:45.649
ㄱ이 왔죠.

00:07:45.749 --> 00:07:49.377
그래서 지금 ㅋ을 대표해서
ㄱ이 왔기 때문에

00:07:49.477 --> 00:07:53.365
이 ㄱ, ㄴ, ㄷ, ㄹ, ㅁ,
ㅂ 7자를 뭐라고 하나면

00:07:53.465 --> 00:07:59.626
대표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.

00:07:59.726 --> 00:08:06.685
예를 들어서 ㄱ, ㅋ 이런
것들이 받침으로 오잖아요?

00:08:06.785 --> 00:08:09.166
그러면 대표로 ㄱ이.

00:08:09.266 --> 00:08:10.758
ㄱ도 마찬가지로이고.

00:08:10.858 --> 00:08:16.231
이런 것들이 받침으로 오면 발음할 때
이것이 대표로 발음이 되잖아요.

00:08:16.331 --> 00:08:20.123
그래서 대표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.

00:08:20.223 --> 00:08:24.084
그러면 여기서
다시 한 번 근본적인 물음.

00:08:24.184 --> 00:08:24.958
이게 왜 교체인가.

00:08:25.058 --> 00:08:26.023
교체죠.

00:08:26.123 --> 00:08:30.931
ㅋ에서 ㄱ으로 교체가 됐잖아요.

00:08:31.031 --> 00:08:39.255
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
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.

00:08:39.355 --> 00:08:40.930
이해됐어요?

00:08:41.030 --> 00:08:43.355
그래서 여기 보면,

00:08:43.455 --> 00:09:03.646
교재에서는 예로 갖,
갖, 갖, 같 이런 거.

00:09:03.746 --> 00:09:05.543
다 지금 뭐로 돼요?

00:09:05.643 --> 00:09:05.759
실제 발음해보면 이런 것들이
다 대표음이 어떻게 됩니까?

00:09:05.859 --> 00:09:13.677
ㄷ이 대표음이 되는 거죠.

00:09:13.777 --> 00:09:16.538
그래서 발음이 다 어떻게 됩니까?

00:09:16.638 --> 00:09:19.752
이 네 가지가 다
같으로 되는 거죠.

00:09:19.852 --> 00:09:23.690
그래서 이 발음 기호 안에 끝소리로
올 수 있는 것이 ㄷ이에요.

00:09:23.790 --> 00:09:26.638
일곱 자음 중에 ㄷ이 오는 거죠.

00:09:26.738 --> 00:09:28.771
그래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,

00:09:28.871 --> 00:09:32.839
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발음했을
때 그 발음 기호 안에서

00:09:32.939 --> 00:09:37.571
마지막 부분에, 끝소리 부분에 올 수
있는 자음이 7개밖에 안 된다.

00:09:37.671 --> 00:09:39.737
이것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.

00:09:39.837 --> 00:09:43.173
지금 이렇게 대표로 일곱 자음
중에 하나로 바뀌는 것이

00:09:43.273 --> 00:09:45.742
교체되는 것이기 때문에
교체에 해당된다.

00:09:45.842 --> 00:09:47.607

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

00:09:47.707 --> 00:09:51.601
그러면 다음 비음화로 넘어갈게요.

00:09:51.701 --> 00:09:52.822
이해되셨죠?

00:09:52.922 --> 00:09:54.576
이제 비음화입니다.

00:09:54.676 --> 00:09:56.930
비음화는 43쪽에 나와 있는데

00:09:57.030 --> 00:10:00.051
비음화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
시간에 배웠던 음운의 체계에서

00:10:00.151 --> 00:10:04.192
비음이 뭔지를 아셔야죠.
비음이 뭐니까?

00:10:04.292 --> 00:10:07.344
비음은 3개가 있었는데
기억나시나요?

00:10:07.444 --> 00:10:10.325
복습 잘 했으면 기억나겠죠.

00:10:10.425 --> 00:10:11.731
기억나요?

00:10:11.831 --> 00:10:14.624
열공 좀 하는데요?

00:10:14.724 --> 00:10:21.867
ㄴ, ㄹ, ㅇ 이게 지금 비음이죠.

00:10:21.967 --> 00:10:24.303
외우기 힘들면 이렇게 외우세요.

00:10:24.403 --> 00:10:29.045
비가 코 비 자니까
어머니는 코가 아프다.

00:10:29.145 --> 00:10:31.715
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돼요.

00:10:31.815 --> 00:10:34.574
그래서 비음화인데
화 자가 될 화 자거든요?

00:10:34.674 --> 00:10:40.337
그러면 어떤 경우에서 비음이
되는지를 알면 됩니다.

00:10:40.437 --> 00:10:46.214
한마디로 비음화라는 것은 비음이
아닌 것이 비음을 만나서

00:10:46.314 --> 00:10:48.497

비음으로 되는 거예요.

00:10:48.597 --> 00:10:49.839
말이 좀 어렵나요?

00:10:49.939 --> 00:10:51.680
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.

00:10:51.780 --> 00:10:55.752
비음이 아닌 것이
비음이 되는 현상.

00:10:55.852 --> 00:10:58.442
쉽게 이야기해보면,

00:10:58.542 --> 00:11:10.124
비음화는 비음이 아닌
것이 비음으로 되는 것.

00:11:10.224 --> 00:11:13.559
이거를 이해하셔야 돼.

00:11:13.659 --> 00:11:16.820
44쪽을 보세요.

00:11:16.920 --> 00:11:19.436
ㄱ, ㄷ, ㅂ이 있죠?

00:11:19.536 --> 00:11:25.310
비음이 아닌 것이라고 한다면 ㄱ, ㄷ,
ㅂ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.

00:11:25.410 --> 00:11:31.569
ㄱ, ㄷ, ㅂ이 비음을 만납니다.

00:11:34.855 --> 00:11:37.346
일단 들으세요, 이해가 잘
안 되더라도 들으세요.

00:11:37.446 --> 00:11:38.757
예를 들어 줄 거예요.

00:11:38.857 --> 00:11:41.312
ㄱ, ㄷ, ㅂ이 비음이 아니죠?

00:11:41.412 --> 00:11:42.626
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?

00:11:42.726 --> 00:11:45.433
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열음이라고
배웠죠, 음운의 자음 체계에서.

00:11:45.533 --> 00:11:49.169
ㄱ, ㄷ, ㅂ은 분명히
비음이 아닙니다.

00:11:49.269 --> 00:11:53.300
그런데 이것이 비음을
만나서 어떻게 변하냐면

00:11:53.400 --> 00:11:55.154

ㄱ은 ㅇ으로

00:11:55.254 --> 00:11:56.876

ㄷ은 ㄴ으로

00:11:56.976 --> 00:12:00.101

ㅂ은 ㅁ으로, 이렇게 바뀌거든요.

00:12:00.201 --> 00:12:01.981

이런 것들이 바로 비음화예요.

00:12:02.081 --> 00:12:07.246

예를 들어서 여기 44쪽에
예를 들어왔는데.

00:12:07.346 --> 00:12:12.052

ㄱ이 비음을 만나서 ㅇ으로
바뀌는 거를 예로 들어볼게요.

00:12:12.152 --> 00:12:14.951

이런 거.

00:12:17.729 --> 00:12:20.174

국물했어요, ㄱ과 ㅁ이 만났죠.

00:12:20.274 --> 00:12:22.255

ㄱ은 비음이 아닌 거예요.

00:12:22.355 --> 00:12:26.113

그런데 ㅁ이라는 비음을 만났습니다.

00:12:26.213 --> 00:12:29.566

그러면 이 비음이라는
아이는 힘이 세요.

00:12:29.666 --> 00:12:37.457

파워가 세서 비음이 아닌 것을 비음으로
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.

00:12:37.557 --> 00:12:40.659

그냥 힘이 세다고 하지 말고
매력이 있다고 할까요?

00:12:40.759 --> 00:12:42.684

비음은 매력이 아주 철철 넘칩니다.

00:12:42.784 --> 00:12:45.758

그래서 비음이 아닌 것을
비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.

00:12:45.858 --> 00:12:49.879

그래서 ㄱ을 ㅇ이라는
비음으로 만드는 거죠.

00:12:49.979 --> 00:12:55.342

그래서 어떻게 돼요?
ㄱ이 ㅇ으로 궁물.

00:12:55.442 --> 00:13:01.411

그러니까 국물이 궁물이
되는 이유는,

00:13:01.511 --> 00:13:06.602

비음이 아닌 ㄱ이 비음을 만나서 애의 영향으로 인해서

00:13:06.702 --> 00:13:10.380

ㄱ이 ㅇ으로 바뀐 거예요.

00:13:10.480 --> 00:13:12.725

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죠.

00:13:12.825 --> 00:13:15.929

선생님, 그런데 왜 ㄱ이 ㅇ으로만 바뀌어요?

00:13:16.029 --> 00:13:17.825

ㄴ으로 바뀌면 안 돼요?

00:13:17.925 --> 00:13:20.344

ㄹ으로 바뀌면 안 돼요?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어요.

00:13:20.444 --> 00:13:23.780

아주 똑똑한 질문이에요. 왜?

00:13:23.880 --> 00:13:28.739

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자음 체계를 잘 기억을 해두라고 했잖아요.

00:13:28.839 --> 00:13:33.002

자음 체계에서 자음을 어떻게 분리했죠?

00:13:33.102 --> 00:13:37.415

소리나는 위치, 그다음에 소리내는 방법, 조음 방법.

00:13:37.515 --> 00:13:40.460

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서 분류했잖아요.

00:13:40.560 --> 00:13:44.836

그때 우리가 조음 위치를 복습을 했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.

00:13:44.936 --> 00:13:50.341

ㄱ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이 ㄱ한테 너 이리와, 너 비음으로 바뀌.

00:13:50.441 --> 00:13:53.950

이렇게 할 때 그냥 아무 비음이나 막 바꾸는 게 아니고

00:13:54.050 --> 00:13:58.663

이 ㄱ에 해당하는 이 조음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바꾸는 거예요.

00:13:58.763 --> 00:14:00.387

그러면 생각해 보세요.

00:14:00.487 --> 00:14:03.372

기어 어디 있었죠?
여린입천장 쪽에 있었죠.

00:14:03.472 --> 00:14:07.479

그때 기어 발음되는 곳에 같이
있었던 애들 기억나세요?

00:14:07.579 --> 00:14:12.340

기, 끼, 키, ㅇ이죠.

00:14:12.440 --> 00:14:15.312

그러니까 같은 조음 위치에
있는 ㅇ으로 바뀌는 거예요.

00:14:15.412 --> 00:14:18.588

그렇게 깊은 뜻이?

00:14:18.688 --> 00:14:22.335

그러면 디은요? 디도 윗잇몸 쪽.

00:14:22.435 --> 00:14:25.527

그러니까 니, 디..
쪽 7개가 있는데

00:14:25.627 --> 00:14:30.612

여기서 디은 그 조음 위치에
있는 비음으로 바뀌는 거예요.

00:14:30.712 --> 00:14:31.923

이것도 마찬가지로.

00:14:32.023 --> 00:14:38.573

두입술 사이에서 나는
소리, 입술소리.

00:14:38.673 --> 00:14:42.407

그러니까 바이 그 조음 위치에
있는 비음으로 바뀌는 거예요.

00:14:42.507 --> 00:14:51.031

그냥 딱 바뀌는 게 아니고 자기 조음
위치에 있는 그 비음으로 바뀌는구나.

00:14:51.131 --> 00:14:55.958

이렇게 이해하면 최고.

00:14:56.058 --> 00:15:00.249

이거로 또 문제 많이 내요.

00:15:00.349 --> 00:15:04.667

그래서 왜 기어 ㅇ으로
바뀌는지 이것도 아셔야 돼요.

00:15:04.767 --> 00:15:06.708

디, 니 해볼까요?

00:15:06.808 --> 00:15:12.937

달는, 디과 니 비음이 만났죠.

00:15:13.037 --> 00:15:16.979

그래서 애가 애를 뭐로 바꿔요?
ㄴ으로 바꾸죠.

00:15:19.026 --> 00:15:23.483

이거는 밥물.

00:15:23.583 --> 00:15:26.330

비이 ㅁ을 만나서,

00:15:26.430 --> 00:15:29.101

ㅁ이 비음이 아닌 비을
비음으로 만드는.

00:15:29.201 --> 00:15:31.223

그래서 비을 ㅁ으로 바꾸는 거죠.

00:15:31.323 --> 00:15:33.830

그래서 밥물.

00:15:33.930 --> 00:15:35.615

이거 또 뭐예요?

00:15:35.715 --> 00:15:37.887

지금 보면 ㅁ이 ㅇ으로 교체됐고

00:15:37.987 --> 00:15:39.954

ㄷ이 ㄴ으로 교체됐고

00:15:40.054 --> 00:15:44.804

비이 ㅁ으로 교체됐으니까
교체에 해당되는 것이죠.

00:15:44.904 --> 00:15:46.208

이해되세요?

00:15:46.308 --> 00:15:48.539

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

00:15:48.639 --> 00:15:53.677

그다음에 우리 다음
내용을 보겠습니다.

00:15:53.777 --> 00:15:58.073

유음화를 볼게요.

00:15:58.173 --> 00:16:00.823

유음화도 우리가 지난
번에 공부할 때,

00:16:00.923 --> 00:16:06.088

유음이 뭔지를 기억을 하고
있어야 되는데 ㄴ이죠.

00:16:06.188 --> 00:16:08.903

그러면 유음화는 뭐냐?

00:16:09.003 --> 00:16:12.103

말 그대로 유음이 아닌 것을
유음으로 만드는 거죠.

00:16:12.203 --> 00:16:16.022

르로 만드는 건데 이거는
조건이 있어요.

00:16:16.122 --> 00:16:18.321
무슨 조건이나면 이렇게 됩니다.

00:16:18.421 --> 00:16:22.912
ㄴ과 르이 만났을 때 혹은
르과 ㄴ이 만났을 때.

00:16:23.012 --> 00:16:25.991
이럴 때만 유음화가 발생한다.

00:16:26.091 --> 00:16:28.502
유음화가 발생하는 조건이
있단 말이에요.

00:16:28.602 --> 00:16:29.869
이 조건을 기억하셔야 돼요.

00:16:29.969 --> 00:16:33.899
그래서 ㄴ과 르이 만나면
르에 영향을 받아서

00:16:33.999 --> 00:16:37.402
ㄴ이 르로 바뀝니다, 이렇게.

00:16:37.502 --> 00:16:40.757
르와 ㄴ이 만나면 앞에
있는 르에 영향을 받아서

00:16:40.857 --> 00:16:44.223
뒤에 있는 ㄴ이 르로 바뀌어요.

00:16:44.323 --> 00:16:46.899
이렇게만 하면 무슨
이야기인지 모르겠죠?

00:16:46.999 --> 00:16:49.938
예를 들어 드릴게요.

00:16:53.516 --> 00:16:55.725
ㄴ과 르이 만났죠?

00:16:55.825 --> 00:16:58.948
그래서 르에 영향을 받아서
ㄴ이 르이 돼요.

00:16:59.048 --> 00:17:04.021
그래서 발음이 신나가
아니고 실라가 돼요.

00:17:04.121 --> 00:17:06.102
이렇게 되는 겁니다.

00:17:06.202 --> 00:17:09.703
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칼날.

00:17:09.803 --> 00:17:11.456
르과 ㄴ이 만났어.

00:17:11.556 --> 00:17:14.556

앞에 있는 큰에 영향을 받아서
ㄴ이 큰이 된 거야.

00:17:14.656 --> 00:17:19.604
그래서 칼랄, 이렇게 되는 거예요.

00:17:24.913 --> 00:17:28.745
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

00:17:28.845 --> 00:17:32.058
이게 유음화의 전부라고 생각할
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.

00:17:32.158 --> 00:17:33.026
제가 말했죠?

00:17:33.126 --> 00:17:36.551
생강 국어 문법 만들 때
재미로 만든 게 아니에요.

00:17:36.651 --> 00:17:39.004
절대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.

00:17:39.104 --> 00:17:40.945
원래 공부할 때
짜증나는 게 뭐예요?

00:17:41.045 --> 00:17:44.551
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
빈틈이 있을 때.

00:17:44.651 --> 00:17:46.854
문제 풀 때 이거 안 배운 건데?

00:17:46.954 --> 00:17:48.743
이런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.

00:17:48.843 --> 00:17:53.313
제가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서 빈틈이
하나도 없게 만든 게 생강 국어 문법.

00:17:53.413 --> 00:17:57.996
그래서 거기 다음 내용
보세요, 45쪽 위에 보세요.

00:17:58.096 --> 00:18:01.914
이러한 조건에서 유음화가 발생하는데

00:18:02.014 --> 00:18:05.989
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
유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

00:18:06.089 --> 00:18:10.423
거기에 뭐라고 썼습니까?

00:18:10.523 --> 00:18:15.272
유음화의 예외, 라고 했죠.

00:18:15.372 --> 00:18:21.890

이것을 우리가 반드시
기억해야 됩니다.

00:18:21.990 --> 00:18:25.736
표준발음법 제20항에
언급이 돼있는 건데.

00:18:25.836 --> 00:18:28.447
의견란, 임진란, 산산량 보세요.

00:18:28.547 --> 00:18:30.327
임질란 아니죠?

00:18:30.427 --> 00:18:32.519
의결란 아닙니다.

00:18:32.619 --> 00:18:36.283
결달력 아니에요, 결판력.

00:18:36.383 --> 00:18:39.898
공편력, 동원력, 상견력, 횡단도,

00:18:39.998 --> 00:18:42.638
이원논, 이원노,
구근뉴 이런 식으로.

00:18:42.738 --> 00:18:45.229
그래서 이렇게 유음화에
예외가 있는데

00:18:45.329 --> 00:18:47.670
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,

00:18:47.770 --> 00:18:51.824
3음절의 한자어.

00:18:57.027 --> 00:18:59.273
무조건 3음절의
한자어라는 게 아니고

00:18:59.373 --> 00:19:03.893
3음절의 한자어 구조가
이렇게 되어있어요.

00:19:03.993 --> 00:19:07.499
3음절이니까 3개의
한자어가 있단 말이에요.

00:19:07.599 --> 00:19:12.668
그런데 2+1로 앞에는
의미를 가진 게 있고

00:19:12.768 --> 00:19:22.371
뒤에가 혼자서 못 쓰이는
접미사적 성격을 지닌 한자어.

00:19:22.471 --> 00:19:26.126
무슨 이야기냐면 말이 좀
어렵죠, 접미사적이라는 말이.

00:19:26.226 --> 00:19:28.922

그러니까 접미사라는 거는
혼자서 못 쓰이는 거예요.

00:19:29.022 --> 00:19:32.462

그래서 보면 란, 렉, 로
이런 거 혼자 못 쓰이잖아요.

00:19:32.562 --> 00:19:33.807

앞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.

00:19:33.907 --> 00:19:35.485

그래서 접미사적 성격의 한자어.

00:19:35.585 --> 00:19:40.271

2+1 이런 식으로 묶인
한자어들이 유음화의 예외다.

00:19:40.371 --> 00:19:43.724

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

00:19:43.824 --> 00:19:47.445

그래서 유음화의 예외라는 것도
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.

00:19:47.545 --> 00:19:54.266

하여튼 이것도 ㄴ이
ㄹ로 교체되는 것이고

00:19:54.366 --> 00:19:58.364

이것도 이쪽 ㄴ이
ㄹ로 교체되는 거니까

00:19:58.464 --> 00:20:00.779

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.

00:20:00.879 --> 00:20:03.673

다음 구개음화입니다.

00:20:03.773 --> 00:20:07.902

구개음화는 구개가 경구개음을
이야기하는 거예요.

00:20:08.002 --> 00:20:10.660

딱딱한 입천장, 그러면 뭐예요?

00:20:10.760 --> 00:20:13.528

ㅈ이나 ㅊ 이런 거로 바뀌는
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

00:20:13.628 --> 00:20:16.408

그래서 거기 보면 써놨죠.

00:20:16.508 --> 00:20:25.382

구개음화는 끝소리가
ㄷ, ㅌ인 형태소가

00:20:25.526 --> 00:20:29.921

모음 ㅣ나 반모음 ㅍ로
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.

00:20:30.021 --> 00:20:31.229

이렇게 되어있습니다.

00:20:31.329 --> 00:20:34.213

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.

00:20:34.313 --> 00:20:42.998

모음 ㅣ나 반모음 ㅍ.

00:20:43.098 --> 00:20:46.862

반모음 ㅣ로 시작한다는 이야기는
이중모음이라는 이야기예요.

00:20:46.962 --> 00:20:50.783

이중모음은 반모음이랑
같이 연결되어있으니까.

00:20:50.883 --> 00:20:59.323

그래서 ㄷ,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
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.

00:20:59.423 --> 00:21:04.965

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이거를
주목 안 하는 경우가 많죠.

00:21:05.065 --> 00:21:06.513

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데.

00:21:06.613 --> 00:21:09.128

형식 형태소라는 말이
되게 중요해요.

00:21:11.256 --> 00:21:15.094

대부분 이거를 중심으로 보지
이거를 잘 안 보더라고요.

00:21:15.194 --> 00:21:18.917

이거로 시험 문제 내면
다 틀리는데, 진짜로.

00:21:19.017 --> 00:21:21.336

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?

00:21:21.436 --> 00:21:23.724

ㄷ이 ㅈ으로 바뀌고

00:21:23.824 --> 00:21:26.653

ㅌ이 ㅊ으로 바뀐다,
이런 이야기거든요.

00:21:26.753 --> 00:21:29.039

그래서 쉬운 구개음화를
예로 들면 이런 거죠.

00:21:29.139 --> 00:21:33.282

뭐를 예로 들까요?

00:21:37.295 --> 00:21:39.062

ㄷ이 ㅌ을 만났죠.

00:21:39.162 --> 00:21:42.580

앞에 초성에 있는 ㅇ은

계산하지 않는 거니까.

00:21:42.680 --> 00:21:46.049
그래서 ㄷ이 모음 ㅣ 를 만났어요.

00:21:46.149 --> 00:21:48.562
그래서 ㄷ이 뭐로 변해요?
ㅈ으로 변해요.

00:21:48.662 --> 00:21:55.099
그래서 ㄷ이 ㅈ으로 변하고
연음돼서 어떻게 됩니까?

00:21:55.199 --> 00:22:02.487
최종적으로 해도지가
되죠, 발음할 때.

00:22:02.587 --> 00:22:05.049
해도디가 아니고.

00:22:05.149 --> 00:22:15.418
여기 구개음화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
뭐냐면 바로 받이랑 문제예요.

00:22:15.518 --> 00:22:18.290
해돋이 이런 것은 아무
문제가 안 되죠.

00:22:18.390 --> 00:22:19.569
어렵지도 않고.

00:22:19.669 --> 00:22:24.155
그렇다면 다음의 단어를
발음해볼까요?

00:22:24.255 --> 00:22:33.326
이거 받이랑 논이랑 이렇게
할 때 그 이랑이 아니고.

00:22:33.426 --> 00:22:35.784
두둑의 의미의 이랑입니다.

00:22:35.884 --> 00:22:40.192
이럴 때 발음을 해보라고 하면 바치랑?
바티랑? 받치랑?

00:22:40.292 --> 00:22:41.723
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.

00:22:41.823 --> 00:22:47.818
그런데 정답은 뭐냐면 반니랑이에요.

00:22:47.918 --> 00:22:50.645
이게 맞는 거예요.

00:22:50.745 --> 00:22:54.209
이렇게 돼요.

00:22:58.569 --> 00:22:59.936
이렇게 있잖아요?

00:23:00.036 --> 00:23:03.212

그러면 지금 두둑의
의미의 이랑이니까

00:23:03.312 --> 00:23:09.940

이랑은 실질 형태소예요,
형식 형태소가 아닌 거예요.

00:23:10.040 --> 00:23:14.165

여기서 다들 틀리는 거죠.

00:23:14.265 --> 00:23:16.573

이게 실질 형태소인
거를 생각을 안 하고

00:23:16.673 --> 00:23:19.081

무조건 구개음화로 접근하려고
하면 틀린 거예요.

00:23:19.181 --> 00:23:22.417

예를 들어서 발과
이랑이 결합했으니까

00:23:22.517 --> 00:23:26.959

일단 트이 뭐로 돼야 돼요? ㄷ.

00:23:27.059 --> 00:23:28.992

음절의 끝소리 적용하고.

00:23:29.092 --> 00:23:31.499

그래서 받이랑으로 하면 오케이.

00:23:31.599 --> 00:23:35.645

ㄷ과 이가 만났으니까 ㅈ,
구개음화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.

00:23:35.745 --> 00:23:38.363

그래서 받이랑, 이런 식으로.

00:23:38.463 --> 00:23:42.622

혹은 ㄷ, 트.

00:23:42.722 --> 00:23:47.085

트이니까 이게 만나서 바치랑,
ㅈ으로 되면 되겠네.

00:23:47.185 --> 00:23:50.922

그래서 바치랑이 맞겠네,
이런 식으로 해요.

00:23:51.022 --> 00:23:56.794

그런데 아까 전에 이거를
ㄷ으로 바꾸는 거.

00:23:56.894 --> 00:23:58.749

이거는 잘 한 거죠.

00:23:58.849 --> 00:24:01.358

그런데 이거를 바로 트과
이가 만나서 ㅈ으로 바꾸는

00:24:01.458 --> 00:24:03.534

구개음화로 바로 적용시키는
것은 잘못된 거고.

00:24:03.634 --> 00:24:06.515

이랑이 실질 형태소니까
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?

00:24:06.615 --> 00:24:10.156

앞에 있는 거를 음절의 끝소리
규칙, 이게 맞는 거예요.

00:24:10.256 --> 00:24:11.958

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,

00:24:12.058 --> 00:24:16.658

이게 뒤에 배우지만 ㄴ
첨가의 조건이 돼요.

00:24:16.758 --> 00:24:19.874

앞에가 자음으로 끝나고
뒤에가 이로 시작하면

00:24:19.974 --> 00:24:24.498

이 ㅇ 부분에 ㄴ이
새로 생기게 돼있어요.

00:24:24.598 --> 00:24:28.012

그래서 ㄴ 첨가가 돼서
받니랑이 되고요.

00:24:28.112 --> 00:24:31.249

여기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
비음화가 적용이 되죠?

00:24:31.349 --> 00:24:33.189

ㄴ이 비음이고 이게
비음이 아닌 거.

00:24:33.289 --> 00:24:37.140

그래서 최종적으로
받니랑이 되는 거예요.

00:24:43.814 --> 00:24:48.548

이게 구개음화에서 낼 수
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.

00:24:48.648 --> 00:24:50.961

다 틀려요, 이거 내면.

00:24:51.061 --> 00:24:54.135

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
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.

00:24:54.235 --> 00:24:56.561

아시겠죠? 기분 좋죠?

00:24:56.661 --> 00:25:00.773

바로 이런 빈틈을 없애는
게 나의 사명이야.

00:25:00.873 --> 00:25:07.763
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.

00:25:07.863 --> 00:25:09.215
된소리되기.

00:25:09.315 --> 00:25:14.982
교재 46쪽에 나와 있어요.

00:25:15.082 --> 00:25:21.498
된소리가 되는 다양한 조건들을
제가 다 언급을 해놨는데요.

00:25:21.598 --> 00:25:23.205
그냥 읽어보면 되고

00:25:23.305 --> 00:25:26.445
된소리되기가 왜 교체인지 정도만
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.

00:25:26.545 --> 00:25:30.168
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.

00:25:30.268 --> 00:25:37.466
예를 들어 국밥이 있으면,
이제 첫 번째 경우인데.

00:25:37.566 --> 00:25:41.637
ㄱ 뒤에 비이 오면 비은
된소리로 발음이 되면서

00:25:41.737 --> 00:25:45.611
국뺨이 되죠.

00:25:45.711 --> 00:25:51.017
이렇게 됐을 때 비이
뺨으로 교체가 된 거니까

00:25:51.117 --> 00:25:53.934
된소리되기도 교체라고 보는 거죠.

00:25:54.034 --> 00:25:57.108
그래서 46쪽에
나와있는 내용을 보면서

00:25:57.208 --> 00:26:00.600
된소리되기의 다양한
조건들을 점검해보면 돼요.

00:26:00.700 --> 00:26:03.496
그러면 교체를 마무리하고,

00:26:03.596 --> 00:26:07.775
교체가 안에 있는 내용 요소들이 가장 많았어요.
5개나 되잖아요?

00:26:07.875 --> 00:26:11.280
나머지 것들은 간단합니다.

00:26:11.380 --> 00:26:13.518
이번에 음운의 탈락을 볼게요.

00:26:13.618 --> 00:26:15.520
47쪽에 나와 있거든요.

00:26:15.620 --> 00:26:23.750
보면 자음군 단순화,
이게 가장 핫하죠.

00:26:23.850 --> 00:26:25.736
나머지는 다 탈락, 탈락 써있는데

00:26:25.836 --> 00:26:27.806
이거는 자음군 단순화로 되어있으니까

00:26:27.906 --> 00:26:30.922
이것이 음운의 탈락인지
교체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.

00:26:31.022 --> 00:26:33.157
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.

00:26:33.257 --> 00:26:36.294
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
구별을 해야 됩니다.

00:26:36.394 --> 00:26:39.677
왜냐하면 자음군 단순화의 예가
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.

00:26:42.506 --> 00:26:45.189
답.

00:26:45.289 --> 00:26:48.231
이거 어떻게 발음됩니까?

00:26:48.331 --> 00:26:51.484
최종적으로 닥이죠.

00:26:51.584 --> 00:26:53.786
그러면 우리 친구들이
이렇게 생각해요.

00:26:53.886 --> 00:26:55.715
리 대신에 기이 왔네?

00:26:55.815 --> 00:26:58.169
이런 식으로 음절의 끝소리
규칙으로 생각하고

00:26:58.269 --> 00:27:00.580
자음군 단순화를 교체라고
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.

00:27:00.680 --> 00:27:02.206
아니죠.

00:27:02.306 --> 00:27:06.637
이거는 자음군, 군이 뭐예요?
무리 군.

00:27:06.737 --> 00:27:08.237

자음에 무리가 왔잖아요.

00:27:08.337 --> 00:27:11.040

자음군이 단순해지는 거야.

00:27:11.140 --> 00:27:12.492

어떻게? 탈락해서.

00:27:12.592 --> 00:27:19.319

ㄹ이 떨어져서 ㄱ이 된

거거든요, 탈락해서.

00:27:19.419 --> 00:27:21.764

그러니까 자음군

단순화는 탈락이에요.

00:27:21.864 --> 00:27:25.882

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

부엌에서 엷이 억으로 되는 거.

00:27:25.982 --> 00:27:28.796

그거랑 이거는 다른 음운 현상이다.

00:27:28.896 --> 00:27:33.087

그래서 음절의 끝소리

규칙과 자음군 단순화는

00:27:33.187 --> 00:27:35.382

확실하게 우리가 구별해서

알아둬야 돼요.

00:27:35.482 --> 00:27:37.686

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이고

00:27:37.786 --> 00:27:41.895

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다,

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.

00:27:41.995 --> 00:27:48.768

그래서 자음군 단순화

설명 제가 해봤고요.

00:27:48.868 --> 00:27:51.007

그다음에 다음은 ㄹ 탈락.

00:27:51.107 --> 00:27:57.285

교재 47쪽에 보면 ㄹ

탈락에서 울는, 우는과 같이

00:27:57.385 --> 00:28:00.430

자음을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

몇몇 어미와 결합될 때

00:28:00.530 --> 00:28:04.771

ㄹ이 탈락되는 경우와, 이거는

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.

00:28:04.871 --> 00:28:08.279

그다음에 단어가 생성될 때

ㄹ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.

00:28:08.379 --> 00:28:09.661

솔나무, 소나무

00:28:09.761 --> 00:28:11.998

말소, 마소 이런 것들.

00:28:12.098 --> 00:28:12.939

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.

00:28:13.039 --> 00:28:15.577

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
쭉 읽어보셔도 되는 부분이고.

00:28:15.677 --> 00:28:17.483

ㅎ이 탈락하는 경우.

00:28:17.583 --> 00:28:20.554

ㅎ을 끝소리로 가진 어간이
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

00:28:20.654 --> 00:28:22.002

ㅎ이 탈락되는 현상.

00:28:22.102 --> 00:28:24.711

그래서 좋은, 놓아 이런 것들.

00:28:24.811 --> 00:28:31.401

좋은 발음할 때 ㅎ이 떨어져서
조은 이렇게 발음되잖아요?

00:28:31.501 --> 00:28:34.633

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

00:28:34.733 --> 00:28:39.089

그다음에 자음만 탈락하는 게
아니고 모음도 탈락한다.

00:28:39.189 --> 00:28:41.989

48쪽에 이런 것들이죠.

00:28:42.089 --> 00:28:49.135

가서 같은 경우는 가랑 아서가
붙어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다?

00:28:49.235 --> 00:28:54.783

같은 ㅏ, ㅑ가 있으니까 둘 중에
하나가 떨어져서 가서가 된 거다.

00:28:54.883 --> 00:28:57.194

이런 이야기들.

00:28:57.294 --> 00:29:02.089

그래서 모음 탈락에
대한 이야기도 있다.

00:29:02.189 --> 00:29:04.192

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.

00:29:04.292 --> 00:29:06.799

다음.

00:29:06.899 --> 00:29:11.107
이번에는 첨가를 보겠습니다.

00:29:15.564 --> 00:29:19.274
첨가는 사잇소리 현상을
들 수가 있어요.

00:29:19.374 --> 00:29:23.124
교재 48쪽 보세요.

00:29:23.224 --> 00:29:27.179
두 형태소가 결합될 때 그 사이에
음운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는데

00:29:27.279 --> 00:29:28.913
이를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한다.

00:29:29.013 --> 00:29:32.440
그래서 사잇소리 현상은
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.

00:29:32.540 --> 00:29:36.621
사잇소리가 첨가돼서 뒤 형태소의 첫
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.

00:29:36.721 --> 00:29:46.748
초+불 해서 촛불.

00:29:46.848 --> 00:29:49.468
쓸 때는 촛불인데,
사이사이 들어가는데

00:29:49.568 --> 00:29:58.548
실제 초빨, 이렇게 없던 게
생겨서 발음되는 경우.

00:29:58.648 --> 00:30:01.075
이런 게 첨가이고.

00:30:01.175 --> 00:30:03.524
그다음에 콧날 같은 경우.

00:30:03.624 --> 00:30:06.884
세 가지 사례가 있어요,
사잇소리 현상에는.

00:30:06.984 --> 00:30:10.474
코+날 했을 때 없던 게 생겨요.

00:30:16.399 --> 00:30:25.338
쓸 때는 콧날인데 ㄴ이 첨가돼서
콘날,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.

00:30:25.438 --> 00:30:31.197
그다음에 이거, 세 번째
거가 제일 중요한데.

00:30:31.297 --> 00:30:34.324
아까 발이랑 할 때 ㄴ
첨가 이야기했었죠?

00:30:34.424 --> 00:30:36.159

그때 잠깐 당황했었죠.

00:30:36.259 --> 00:30:38.746

ㄴ 첨가 안 배웠는데 갑자기
ㄴ 첨가 이야기해서.

00:30:38.846 --> 00:30:43.155

ㄴ 첨가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.

00:30:43.255 --> 00:30:47.434

나머지 거는 그냥 자료를
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.

00:30:47.534 --> 00:30:49.274

만화책 이거 봐도 되고.

00:30:49.374 --> 00:30:52.870

그런데 ㄴ 첨가 같은 경우는
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.

00:30:52.970 --> 00:30:55.990

이 조건, ㄴ 첨가는
언제 발생하는지.

00:30:56.090 --> 00:31:06.889

앞부분이 자음 받침이어야 돼요.

00:31:06.989 --> 00:31:16.987

그리고 뒷부분이 이, 야, 여, 요, 유
이렇게 되면 돼요.

00:31:17.087 --> 00:31:19.104

볼까요?

00:31:19.204 --> 00:31:22.227

예를 들어 이거 발음해볼까요?

00:31:26.850 --> 00:31:31.694

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.

00:31:34.091 --> 00:31:36.322

소미불 아니죠.

00:31:36.422 --> 00:31:39.036

ㅁ, 앞부분이 자음 받침이죠.

00:31:39.136 --> 00:31:41.541

그다음에 ㅣ가 왔네요, 오케이.

00:31:41.641 --> 00:31:44.465

그러면 ㄴ이 첨가돼서
발음이 어떻게 된다?

00:31:44.565 --> 00:31:49.010

숨니불이 되는 거예요.

00:31:49.110 --> 00:31:52.858

물론 여기 장음 표시가
있기는 있어요.

00:31:52.958 --> 00:31:54.968

장음 표시는 생략할게요.

00:31:55.068 --> 00:31:56.702

한여름.

00:31:56.802 --> 00:32:01.003

앞부분이 ㄴ 받침 자음으로 끝나고
뒤에 ㅋ가 왔어요, 오케이.

00:32:01.103 --> 00:32:05.656

그러면 ㄴ 첨가 조건이
되니까 한겨름,

00:32:05.756 --> 00:32:08.584

발음할 때는 없던
ㄴ이 생기는 거죠.

00:32:08.684 --> 00:32:10.213

이런 게 ㄴ 첨가다.

00:32:10.313 --> 00:32:13.390

그래서 ㄴ 첨가의 조건, 이거
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.

00:32:13.490 --> 00:32:15.482

이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.

00:32:15.582 --> 00:32:19.440

음운의 첨가 부분에서는
이 ㄴ 첨가,

00:32:19.540 --> 00:32:21.469

이거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.

00:32:21.569 --> 00:32:26.437

ㄴ 첨가가 어떤
조건에서 발생하느냐.

00:32:26.537 --> 00:32:31.175

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.
알겠죠?

00:32:31.275 --> 00:32:38.128

다음 축약 하나만 남았는데.

00:32:38.228 --> 00:32:42.304

오늘은 음운 변동 어려운 부분이라서
질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.

00:32:42.404 --> 00:32:49.339

이거는 음운과 음운, 음운 2개가
결합해서 음운 하나가 되는 거예요.

00:32:49.439 --> 00:32:51.242

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,

00:32:51.342 --> 00:32:54.493

2개의 음운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.

00:32:54.593 --> 00:32:56.628

2개가 하나되는 거.

00:32:56.728 --> 00:33:02.979

그래서 거기 보면 축약은
어떻게 돼있어요?

00:33:03.079 --> 00:33:18.221

음운 축약은 크게 자음 축약과 모음
축약, 이렇게 2개로 나뉘죠.

00:33:18.321 --> 00:33:19.591

용어 기억하세요.

00:33:19.691 --> 00:33:26.181

자음 축약은 같은 말로
거센소리되기라고도 해요.

00:33:30.091 --> 00:33:32.977

그런데 거센소리되기라고
하는 이유가 있어요.

00:33:33.077 --> 00:33:36.526

왜냐하면 자음 축약은 거의
공식처럼 되어있습니다.

00:33:36.626 --> 00:33:38.020

이런 식으로.

00:33:45.433 --> 00:33:52.970

ㄱ, ㄷ, ㅂ, ㅈ 이런
자음이 ㅎ을 만나요.

00:33:53.070 --> 00:33:55.160

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

00:33:55.260 --> 00:33:57.494

ㄱ이 ㅋ으로 줄고

00:33:57.594 --> 00:34:00.274

ㄷ과 ㅎ 두개가 ㅌ으로 줄고

00:34:00.374 --> 00:34:03.350

ㅂ과 ㅎ이 ㅍ으로 줄고

00:34:03.450 --> 00:34:06.217

ㅈ과 ㅎ이 ㅊ으로 줄어요.

00:34:06.317 --> 00:34:08.589

예를 하나만 들면 될 것 같아요.

00:34:08.689 --> 00:34:11.953

ㄱ과 ㅎ이 만나서 ㅋ으로 되는 거?

00:34:12.053 --> 00:34:14.380

국화.

00:34:14.480 --> 00:34:17.297

어떻습니까?

ㄱ과 ㅎ이 만나서 ㅋ이 돼요.

00:34:17.397 --> 00:34:21.294

그래서 최종 발음은 구과가 됩니다.

00:34:21.394 --> 00:34:24.025

그러면서 음운이 줄어들죠.

00:34:24.125 --> 00:34:27.804

2개가 1과 ㅎ이 줄어서
ㄱ으로 되잖아요.

00:34:27.904 --> 00:34:34.900

분명히 1과 ㅎ이 있었는데
이 2개가 하나로 줄어요.

00:34:35.000 --> 00:34:36.840

이게 축약입니다.

00:34:36.940 --> 00:34:40.359

그런데 보면 거센소리가
됐잖아요, ㄱ으로.

00:34:40.459 --> 00:34:49.359

ㄱ, ㅌ, ㄲ, ㅊ이 다 거센소리니까
거센소리되기라고도 하는 거예요.

00:34:49.459 --> 00:34:54.017

모음 축약은 49쪽에 나와 있죠?

00:34:54.117 --> 00:34:58.153

두 모음이 만날 때 앞뒤 음절이
하나의 음절로 줄어드는 현상이다.

00:34:58.253 --> 00:35:02.756

그래서 보랑 아가 합쳐져서 봐.

00:35:02.856 --> 00:35:05.336

가지, 어가 합쳐져서 가져.

00:35:05.436 --> 00:35:11.565

이런 게 모음 축약이라고
보면 되겠습니다.

00:35:11.665 --> 00:35:17.399

그러면 이렇게까지 우리가
개념 정리를 했고요.

00:35:17.499 --> 00:35:19.997

음운 변동은 다 끝났습니다.

00:35:20.097 --> 00:35:25.683

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미있는 문제를
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.

00:35:25.783 --> 00:35:28.307

교재 보세요.

00:35:28.407 --> 00:35:39.718

52쪽에서 57쪽까지
문제가 나와 있습니다.

00:35:39.818 --> 00:35:43.022

밑에 설명을 다 자세하게 해놔서

00:35:43.122 --> 00:35:46.957

그냥 여러분이 먼저 풀고
체크해도 충분할 정도로

00:35:47.057 --> 00:35:49.773

독학이 가능할 정도로
해놓기는 했는데.

00:35:49.873 --> 00:35:53.590

여기서 저와 함께 풀어볼
만한 문제가 있어요.

00:35:53.690 --> 00:36:00.859

그게 바로 6번 문제, 이것은
저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.

00:36:00.959 --> 00:36:02.424

보기를 보세요.

00:36:02.524 --> 00:36:05.239

실제 평가원 기출 문제고
보기를 보니까,

00:36:05.339 --> 00:36:07.749

음운의 변동은 크게
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.

00:36:07.849 --> 00:36:10.514

그래서 어떤 음운이 다른
음운으로 바뀌는 교체.

00:36:10.614 --> 00:36:12.780

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.

00:36:12.880 --> 00:36:14.742

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.

00:36:14.842 --> 00:36:19.416

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
합쳐지는 축약인 것이다.

00:36:19.516 --> 00:36:23.608

어때요? 우리가 배웠던 용어들이
그대로 보기에 제시가 되죠.

00:36:23.708 --> 00:36:24.690

이거 보세요.

00:36:24.790 --> 00:36:26.616

그러니까 이런 거
교체, 탈락, 첨가

00:36:26.716 --> 00:36:29.015

이런 용어들을 모르면
문제 못 푼다니까요.

00:36:29.115 --> 00:36:30.671

아예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.

00:36:30.771 --> 00:36:34.415

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
열심히 열변을 토해가면서

00:36:34.515 --> 00:36:36.371

강의를 했던 이유가
바로 그것입니다.

00:36:36.471 --> 00:36:40.108

문법은 모르면 못
풀어요, 손도 못 대요.

00:36:40.208 --> 00:36:43.476

그러니까 알아야 풀
수 있는 것이다.

00:36:43.576 --> 00:36:47.421

그러면 정답은 4번이었잖아요.

00:36:47.521 --> 00:36:52.822

제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
자세하게 써놨어, 해설을.

00:36:52.922 --> 00:36:54.909

민망할 정도로.

00:36:55.009 --> 00:36:58.481

유치원생이 봐도 이해할
정도로 친절하게 써놨어요.

00:36:58.581 --> 00:37:00.838

그런데 일단 보세요.

00:37:00.938 --> 00:37:03.579

4번이 음운 변동을
바르게 이야기한 건데.

00:37:03.679 --> 00:37:07.027

급행열차 보면,

00:37:09.981 --> 00:37:12.974

르과 ㄷ의 음운 변동이
일어난다고 했어요.

00:37:13.074 --> 00:37:17.811

그냥 이거 다 해보자.

00:37:17.911 --> 00:37:21.091

제가 이 6번 문제를
왜 풀어주냐면,

00:37:21.191 --> 00:37:25.232

6번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?
그러면 음운의 변동은 다 이해한 거다.

00:37:25.332 --> 00:37:28.593

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,
그런 문제라서.

00:37:28.693 --> 00:37:31.554

음운의 변동을 이해했는지를
알 수 있는 바로미터.

00:37:31.654 --> 00:37:35.620
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문제라서
6번을 혼자 스스로 풀었다?

00:37:35.720 --> 00:37:38.020
음운의 변동, 마스터한 겁니다.

00:37:38.120 --> 00:37:40.914
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.
아시겠죠?

00:37:41.014 --> 00:37:45.662
그러면 1번부터 다 해볼게요.

00:37:45.762 --> 00:37:51.580
가랑잎, 어떻게 된 거예요?

00:37:51.680 --> 00:37:54.112
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?

00:37:54.212 --> 00:37:57.838
가랑잎이 되죠.

00:37:57.938 --> 00:38:00.467
이 과정은 어떻게 된 거죠?

00:38:00.567 --> 00:38:02.200
순서대로 가셔야 돼요.

00:38:02.300 --> 00:38:08.184
가랑잎 했을 때 이거 앞애가 자음으로
끝났고 뒤애가 |로 시작하네요.

00:38:08.284 --> 00:38:11.154
무슨 건 만족한 거죠? ㄴ 첨가.

00:38:11.254 --> 00:38:13.678
아직 우리 친구들이
복습이 잘 안 돼서

00:38:13.778 --> 00:38:16.226
선생님처럼 빨리 빨리 바로
나오지는 않을 거예요.

00:38:16.326 --> 00:38:17.850
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.

00:38:17.950 --> 00:38:18.950
그런데 한번 보세요.

00:38:19.050 --> 00:38:23.226
앞애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애가 |로
시작하니까 ㄴ 첨가 조건을 만족한 거죠.

00:38:23.326 --> 00:38:25.055
그래서 ㄴ이 지금
새로 생긴 거예요.

00:38:25.155 --> 00:38:30.734
일단 처음에 ㄴ 첨가가 먼저

발생한 겁니다, 첫 번째로.

00:38:30.834 --> 00:38:34.545

그리고 그다음에 표이 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뭐예요?

00:38:34.645 --> 00:38:36.832

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.

00:38:36.932 --> 00:38:44.625

표에서 비으로 간 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.

00:38:53.099 --> 00:38:57.301

음절의 끝소리 규칙.

00:38:57.401 --> 00:39:00.150

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겠죠.

00:39:00.250 --> 00:39:02.612

ㄴ 첨가는 말 그대로 뭐예요?

00:39:02.712 --> 00:39:05.829

음운의 첨가에 해당되고.

00:39:05.929 --> 00:39:09.009

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에 해당하는 거.

00:39:09.109 --> 00:39:13.766

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.

00:39:13.866 --> 00:39:19.952

6번 문제만 다 해석할 수 있으면 다 이해한 거예요.

00:39:20.052 --> 00:39:26.069

2번 선택지, 값지다.

00:39:27.722 --> 00:39:29.554

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?

00:39:29.654 --> 00:39:33.930

갑짜다, 이렇게 돼있네요.

00:39:35.700 --> 00:39:39.981

ㅂ이라는 겹받침에서 비이 됐네요.

00:39:40.081 --> 00:39:41.681

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

00:39:41.781 --> 00:39:46.933

자음군이죠, 자음군 사이 탈락되면서 단순화가 된 거 맞죠?

00:39:47.033 --> 00:39:52.236

그러니까 ㅂ에서 비이 된 것은 절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에요.

00:39:52.336 --> 00:39:57.731
자음군 단순화입니다.

00:39:57.831 --> 00:40:02.812
그렇다면 이것은 음운의
탈락에 해당하는 거죠.

00:40:02.912 --> 00:40:04.673
여기까지 가셔야 돼요.

00:40:04.773 --> 00:40:10.650
여기까지 흐름이 가셔야
된다, 탈락.

00:40:10.750 --> 00:40:15.243
그다음에 **ㅂ**으로 바뀐 다음에
뒤에 있는 **ㅈ**을 만나서

00:40:15.343 --> 00:40:17.179
ㅈ으로 변했네?

00:40:17.279 --> 00:40:22.627
이거 뭐니까? 된소리되기.

00:40:22.727 --> 00:40:28.013
이거는 뭐에 해당되죠?
교체에 해당되죠.

00:40:30.284 --> 00:40:34.081
이렇게까지 분석할 수
있어야 되겠습니다.

00:40:34.181 --> 00:40:40.033
세 번째는 술하다.

00:40:43.366 --> 00:40:49.582
최종적으로 수타다, 이렇게 되죠.

00:40:49.682 --> 00:40:57.181
일단 **ㅌ**이 뭐로 되겠어요?

00:40:57.281 --> 00:41:01.559
ㅌ이 **ㄷ**으로 돼야 되겠죠,
음절의 끝소리 규칙.

00:41:01.659 --> 00:41:12.694
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**ㄷ**으로
바뀌니까 이거는 교체죠.

00:41:12.794 --> 00:41:17.894
그러면 **ㄷ**이 **ㅎ**을
만나서 **ㅌ**이 됐네요.

00:41:17.994 --> 00:41:20.675
ㅌ이 바로 **ㅎ** 무시하고
올라간 게 아니죠.

00:41:20.775 --> 00:41:23.691
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**ㄷ**으로
바뀐 다음에 **ㅎ**이 돼서

00:41:23.791 --> 00:41:27.305
ㄷ과 ㅎ이 만나서 자음 축약.

00:41:27.405 --> 00:41:32.700
거센소리되기.

00:41:32.800 --> 00:41:38.123
그래서 이거는 말
그대로 축약입니다.

00:41:38.223 --> 00:41:41.233
분석되나요?

00:41:41.333 --> 00:41:45.400
4번, 5번만 더 해볼게요.

00:41:45.500 --> 00:41:50.463
이거 할 수 있어요.

00:41:50.563 --> 00:41:55.422
급행열차, 4번이 정답이었죠?

00:41:55.522 --> 00:42:04.639
급행열차 같은 경우는
그팽널차, 이렇게 됐어요.

00:42:11.276 --> 00:42:16.191
그러면 ㅂ, ㅎ이
만났으니까 ㅍ이 됐어요.

00:42:16.291 --> 00:42:18.948
ㅍ은 뭐예요? 자음 축약이죠.

00:42:19.048 --> 00:42:25.642
자음 축약이니까 축약이고.

00:42:25.742 --> 00:42:28.737
그다음에 ㅇ과 ㅋ가 만났어요.

00:42:28.837 --> 00:42:31.491
앞에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
ㅋ로 시작하네요, ㄴ 첨가 만족.

00:42:31.591 --> 00:42:34.350
그래서 지금 없던
ㄴ이 생긴 거예요.

00:42:34.450 --> 00:42:38.649
그래서 2번은 ㄴ 첨가예요.
어떻습니까?

00:42:38.749 --> 00:42:42.059
지금 사잇소리 현상 중에서 ㄴ
첨가 정말 많이 나오죠.

00:42:42.159 --> 00:42:44.734
ㄴ 첨가의 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.

00:42:44.834 --> 00:42:48.732
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던 거예요.

00:42:48.832 --> 00:42:52.200
그다음에 5번, 이거하고 끝납니다.

00:42:52.300 --> 00:42:56.824
서른여덟.

00:42:56.924 --> 00:43:02.613
최종적으로 서른여덟이 되는데요.

00:43:02.713 --> 00:43:07.603
서른까지 그대로 가다가 나과 나.

00:43:07.703 --> 00:43:10.493
또 나 받침, 자음 앞이 자음으로
 끝나고 뒤애가 나로 시작하네요.

00:43:10.593 --> 00:43:14.408
나 첨가 조건이 되니까
나 붙었어요.

00:43:14.508 --> 00:43:17.721
그래서 나 첨가가 됐고

00:43:17.821 --> 00:43:24.166
그다음에 러에서 자음군인데
비 탈락해서 르만 남았죠.

00:43:24.266 --> 00:43:27.737
그래서 자음군 단순화구나.

00:43:27.837 --> 00:43:31.282
그러면 자음군 단순화는
탈락이잖아요.

00:43:34.701 --> 00:43:39.331
이런 식으로 분석이 순서대로
돼야 된다는 거예요.

00:43:39.431 --> 00:43:40.917
아시겠죠?

00:43:41.017 --> 00:43:44.003
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
6번 문제를 혼자 스스로,

00:43:44.103 --> 00:43:47.897
선생님처럼 분석할 수
있는지 확인을 해보면

00:43:47.997 --> 00:43:51.589
내가 음운의 변동을 잘
이해했는가를 확인해볼 수 있다.

00:43:51.689 --> 00:43:52.791
아시겠죠?

00:43:52.891 --> 00:43:56.698
그러면 우리 화룡정점
퀴즈하고 마치겠습니다.

00:43:56.798 --> 00:43:58.646

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습니다.

00:43:58.746 --> 00:44:02.554
문법 화룡점정 O, X 퀴즈!

00:44:02.654 --> 00:44:04.047
두 문제 준비해봤습니다.

00:44:04.147 --> 00:44:05.575
바로 정답 들어오시나요?

00:44:05.675 --> 00:44:11.290
정답 체크 했으면 수강 후기에
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

00:44:11.390 --> 00:44:14.858
올리다보면 완강할 수
있을 것입니다.

00:44:14.958 --> 00:44:22.362
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음운
부분, 어려운 부분 끝냈습니다.

00:44:22.462 --> 00:44:26.861
다음 시간에는 음운 끝냈으니까 단어
파트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44:26.961 --> 00:44:31.888
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
보니까 선생님도 가슴이 벅차고

00:44:31.988 --> 00:44:35.367
저도 더 열심히 해야
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

00:44:35.467 --> 00:44:38.322
우리 사랑스러운 제자들
열심히 따라오시고요.

00:44:38.422 --> 00:44:40.088
마무리 멘트하고 마칠게요.

00:44:40.188 --> 00:44:46.256
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.